새해 새 설계

박 종 수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산지유통 비율 확대 총력"

"농업인의 행복한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부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를 이끌게 된 박종수(54) 신임 본부장는 '화합과 상생,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용·경제를 분리한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100년을 향해가는 전남농협을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경제사업과 은행, 보험 등 더 큰 역할을 위해 옷을 갈아 입었을 뿐 농협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며 "농업인과 고객에게 봉사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남농협의 목표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생산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사업을 확대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은 책임지고 파는 시스템을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쌀 전국 브랜드 육성
농기계은행 적극 운영
사회공헌활동도 강화

이를 위해 산지유통 점유비 확대, 저비용 고효율 축산경영여건 조성, 전남쌀 전국 최고브랜드 육성 등을 올해 중점 추진 세부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복지증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본부장은 "고령·여성 농업인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농작업 대행,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사업 등 농기계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영농활동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문화복지센터를 69곳을 운영하고 농촌 다문화 여성 지원, 여성대학, 문화순회공연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할 생각이다.

박 본부장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운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나눔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남 농업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전남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신안군 증도 출신으로 목포고,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농업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중앙회기획실 부부장 ▲목포·신안지부장, 목포상공회의소 의원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업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사진=최현배기자 choi@

15일 광주은행 본점 2층 KJB금융박물관에서 한 가족이 참가해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福 부르는 '복주머니'에 소망 담으세요

광주은행 내달 22일까지 전시회…전통체험 교육도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013년 새해와 다가오는 명절 설을 맞아 광주은행 본점 2층 KJB금융박물관에서 우리 전통문화인 '복주머니'에 소원과 기원을 담고, 절약과 나눔의 문화를 새겨보기 위해 복주머니 전시회를 오는 2월22일까지 펼친다.

전시회 주제는 '복(福)을 부르는 복주머니, 소원을 담는 소망주머니'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정초에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복주머리는 만들어 나누어 주던 풍습이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춘천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40여점의 복주머니 작품이 전시되며 더불어 '복주머니 만들기', '복돈을 담는 지갑만들기'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열려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전통문화 체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준원 사회공헌사무국 본부장은 "고객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해 복을 기원키 위해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부모들과 함께 많은 관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수질분석능력 국제인증
수자원공 광주전남본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가 세계 167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수질분석능력 평가(미국 ERA 주관)에서 최고등급인 'Excellence'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8월에는 영국식품환경연구청(FERA)으로부터 중금속 분야 분석능력 국제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세계적인 환경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평가 운영기관인 미국 ERA로부터 소독부산물(클로로포름) 및 이온류(불소이온, 질산성질소) 총 3항목에 대해서도 전항목 최고등급(Excellent)으로 판정을 받아 먹는물 분야 분석능력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신송운 K-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수질분석능력 국제인증을 통해 먹는물 수질검사의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며 "전남지역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광주·전남지역 수질조사·분석·연구기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신용카드 특별할인 내주 재개

매출감소 우려 카드사-유통업체 합의

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 판매 대란이 예상됐던 신용카드 특별 할인이 내주부터 일제히 재개된다.

카드사가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중단했다가 열흘 만에 백기를 든 것처럼 이번에는 매출 감소를 우려한 카드사와 유통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져 쉽게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새해 잠시 중단했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에 대해 특별 할인 행사를 전격적으로 재개했다.

특별할인 행사는 대형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비용을 전액 부담시켜 진행해 온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으로 특별할인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분담해야 하는데 대형 가맹점이 거부해 새해 들어 특별할인이 중단돼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이들 대형가맹점과 특별 할인 비용을 분담하는데 합의해 특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전자제품, 식료품, 의류 등을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행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경쟁사들도 내주에 일제히 특별 할인 행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가전매장 등에서 설 연휴 판촉 행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 할인을 하지 않고서는 대규모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 대목은 오히려 대형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특별 할인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 무이자 할부 중단처럼 시간을 오래 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롯데카드가 대형가맹점과 이미 분담 협의를 마치고 특별 행사에 돌입한 상황이라 카드업계 특성상 나머지 카드사들도 내주부터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내주 특별 할인 행사 돌입을 위해 막바지 협의 중이다.

삼성카드는 내달 1일까지 기존 무이자할부를 유지하기로 해 특별 할인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다.

하나SK카드도 내주부터 특별 할인 행사 동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격 안정위해 무·대파 4만8천t 푼다

농식품부 이달말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설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겨울철 채소를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무, 대파, 당근은 농협이 계약재배한 물량을 설 대책기간(1월28일~2월8일)에 집중적으로 푼다. 무 4만2000t, 대파 5000t, 당근 1000t 등이다.

겨울배추는 수급조절물량 8000t 중 600t을 설 전까지 대형 유통업체, 농협 매장, 전통시장 등에 할인 공급하고 있다. 연초부터 대형 마트에는 55t을 공급했으며 전통시장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당근 등의 품목은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작황과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과는 수급대책 회의를 열어 겨울채소 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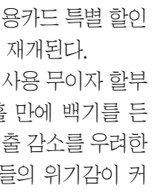
주요 채소류의 산지 동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배추·무·시금치는 기온이 회복하면 출하량도 증가해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양배추·대파·당근은 생산량이 감소해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새얼굴

"中企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오평섭 KB국민은행 호남북본부장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지향적인 영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오평섭(53) KB국민은행 호남북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고와 광주대 대학원을 졸업한 오 본부장은 1979년 입행한후 광주 신창지점장, 동광양지점장, 광주 수석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호남북지역본부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북지역에 35개 지점을 두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